

# 傳統 文化의 脈

진 병 준

(향토사 연구 위원)

## 1. 序 論

신안(新安)은 1969년 1월을 기해 무안군(務安郡)의 관할에서 벗어나 도서부(島嶼部)를 총괄하는 군(郡)으로 승격되었다.

84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이곳은 4면은 에워싸고 있는 바다로 인해 육지와 멀게만 느껴지는 지역이다.

이러한 도서적(島嶼的) 특성 때문에 육지와와의 접촉이 드물고 폐쇄적인 성격이 강해 섬 특유의 도서 문화(島嶼文化)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 주민들은 결속력이 강하고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는 생활 문화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문화 유입의 흡수력도 그 정도가 상당히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아 보존적(自我保存的) 관념에서 유발된 것으로 자체 문화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때문에 이 지역의 생활 문화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여타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옛 생활 풍습의 자취나 형태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 문화라는 하나의 교류나 유입(流入)이 빈번한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생활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시대의 추이(推移)에 따라 점차 사라져 가는 신안(新安), 전통적인 풍속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민간 신앙(民間信仰)에 비중을 두고자 한다.

## 2. 生活 風習

### 1) 衣服의 變遷

본 군(本郡)의 전통 의복은 상의(上衣)는 저고리(襦)를 입었고, 하의(下衣)는 남자의 경우 바지(袴), 여자의 경우 치마(裳)를 입었다.

차츰 의복이 변화와 개량을 거치면서 멋과 실용성을 겸비한 겉옷이 생기게 되어 저고리 위에 마고자와 조끼를 입게 됐고, 외투로는 유행에 따라 같은 형태의 옷이라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게 돼 있다.

하의의 경우는 그 정도가 경미한 편이지만 저고리(襦)의 경우는 시대의 반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사군(漢四郡) 설치시기까지는 북방(北方) 만주족의 의복 형태로 보통 야만인의 복제로 치부되던 호복(胡服) 계통으로 셔츠 왼쪽으로 여며지게 입는 방식인 좌임제(左衽制)를 썼으나 그 이후부터는 남방의 한복(韓服) 계통에 속하는 우임제(右衽制) 즉 셔츠 오른쪽으로 여며지게 입는 방식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저고리의 경우는 이뿐 아니라 허리를 기준으로 상하 길이에 변화를 주었는가 하면 고름의 길이도 길고 짧게 함으로써 지루한 유행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모자에 해당하는 관(冠)에 있어서는 당시 관사(官仕)들은 책(幘)이라는 관(冠)을 쓰고 다녔지만 평민들은 맨상투 바람으로 생활하는 것이 통례였다.

근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나라의 의복은 평상복과 예복(禮服)으로 나누게 되는데 신안 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예복은 보통 관복(官服), 도포(道袍), 상복(喪服)을 꼽을 수 있다.

관복은 남색 비단으로 만든 옷으로 관리들의 예복으로 쓰였으며 국가나 사회에서 행해지는 크고 작은 제의(祭儀)를 주관하던 제주(祭主)의 의복이 되기도 했다.



또한 혼례식 때에는 신랑의 예복으로 사용되는 것이 상례였다.

이에 반해 고운 모시로 만든 담옥색의 세직단의(細織單衣)인 도포(道袍)는 일반적인 예복으로 사용되었다.

여자의 경우는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남자와 같이 여러 종류의 예복이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혼례식 때 입는 원삼(元衫)이 유일한 예복이었다.

이러한 상하의 외에도 추위를 막거나 소매가 쉽게 닳는 것을 막기 위해 팔뚝에 끼던 토수(吐手, 套袖)가 있었는가 하면 발에는 버선을 신었으며, 신으로는 짚신, 삼신, 나막신이 있고, 주로 양반들이나 신던 가죽신도 있었다.

그러나 차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호가 개방되고 서양화의 기류에 휩쓸리면서 의복 형태도 편리와 활동성을 추구하게 되어 한복보다는 양복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츰 토수(套袖)가 없어지고, 버선 대신 양말을 신게 되자 미투리나 짚신은 사라지고 고무신, 운동화, 구두가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게 되었다.

## 2) 食 生 活

본 군의 주식은 대체로 쌀과 보리가 중심이 되었으며, 조, 수수, 옥수수, 콩, 감자 등의 잡곡을 섞어 먹기도 했다.

그 해에 풍작이나 평년작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해 춘궁기(春窮期)가 돌아오면 풀 죽으로 보리 수확이 될 때까지 연명하기도 했지만 흉년을 당해 주곡식이 떨어지면 나무 껍질이나 나뭇잎, 풀뿌리 등을 주식으로 대치하기도 했다.

구황작물(救荒作物)인 고구마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1760년대 후반부터는 고구마가 주식물로 대응되기도 했다.

부식은 소채류(蔬菜類)가 주를 이루었으며, 본 군의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도 많이 먹었다.

그 외에 조류나 수육(獸肉) 등도 있었으나 서민의 상위에는 오르기 힘든 찬 종류였다.

식사는 주로 하루 두끼, 아침과 저녁에 했으며, 술(酒)은 막걸리라 하여 주로 서민층이 마시던 탁주(濁酒)가 있었는가 하면 이보다 고급술로 취급되던 청주(淸酒)와 소주(燒酒)가 있었다.

주방 용기 중 반상(飯床)은 각반(脚盤)을 사용하였고 그릇은 일반적으로 놋그릇(鍬器)과 오지그릇, 질그릇(陶器)를 사용하였으며, 드물게는 나무 그릇을 쓰기도 하였다.



시저(匙箸)는 낫 제품이 흔히 쓰였으며, 은(銀)이나 백금(白金) 제품이 쓰이기도 하였다.

### 3) 주거 형태(住居 形態)

옛날부터 신안군의 가옥 형태는 대체적으로 반 지하형(半地下型), 누목형(累木型), 천막형(天幕型), 공개형(穹蓋型) 등의 종류가 있었는데 마한 시대(馬韓時代)에는 움집 형식의 반 지하형 가옥 형태를 사용하였다.

본 군에서는 지금도 간혹 흙담집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마한 시대의 주거 형태인 반 지하형의 움집 형태와 비슷한 것이라 여겨진다.

근래에 와서는 건축 자재의 발달과 다양성에 기인하여 시멘트, 목재, 석재, 철재를 이용한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다.

**“초분을 하고 난 후 성묘는 하지 않으며 일년에 한 두 번씩 이 영마름을 새로 덮어 준다.”**

### 4) 葬 制

신안군(新安郡)의 도초도(都草島), 비금도(飛禽島), 우이도(牛耳島)에는 독특한 장제(葬制) 형식인 초분(草墳)의 흔적을 지금까지도 볼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마지막 의례가 되는 장법(葬法)의 하나인 초분(草墳)은 임종시 시신(屍身)을 입관(入棺)하는 것 까지는 일반 장제와 차이가 없으나 관을 땅속에 매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 지상에 두었다가 탈골(脫骨)된 후 뼈를 추려 내서 매장(埋葬)하는 장제(葬制)를 말한다.

이 초분(草墳)은 일종의 가장(假葬) 형식을 가미한 장제라고 할 수 있다.

50~60년 전까지만 해도 초분(草墳)을 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조상 전래의 풍습으로 전남 지방에 많이 남아 있었으나 70년대 이후부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본 군에 분포된 초분의 형태를 살펴보면 우선 관의 수평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바닥에 돌 대를 쌓고 그 위에 관을 놓은 후 짚으로 이영을 이어 덮어 원 새끼를 이용하여 그것을 엮는다.



이곳에서는 서까래, 나무, 명석은 덮지 않으며, 단지 짚으로 만든 이엉 마름을 덮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분(草墳)을 하고 난 후 성묘는 하지 않으며, 일년에 한 두 번씩 이엉 마름을 새로 덮어 주는 등 자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초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초분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체를 지상에 가장(假葬)하는 형식인 구토롱과 석담이 있다.

구토롱은 지상에 돌대를 쌓고 관(棺)을 넣는 과정은 초분과 같으나 이엉 대신 흙을 덮기 때문에 구토롱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초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시체를 매장(埋葬)하기 위해 땅을 팔 수 없는 경우에 이런 방식을 택한다.

또한 15세 이하의 아이들이 죽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초분을 하지 않고 공동묘지(共同墓地)에 돌을 쌓아 놓고 돌무덤을 하는데 이것을 석담이라 한다.

일단 1차장(一次葬)인 초분이 있는 지 1년이 지나고부터는 2차장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개는 2, 3년이 지난 후에 지관(地官)이 묘지를 선정하고 길일을 택하여 초분을 열고 세골(洗骨)을 한다.

이 때 다른 지방에서는 쭉뚝과 향물로 세골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명주나 솜과 같은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내는 정도로 씻김을 한다.

이렇게 세골(洗骨)된 유골은 창호지로 각 부위별로 썬 후 칠성판 위에다 누운 순서대로 두개골, 목뼈, 팔, 몸통, 다리, 발뼈의 순으로 맞춰 놓고 칠성 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명주천으로 잘 썬 후 이장지까지 운구(運柩)하여 2차장이 행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초분을 하는 이유를 이곳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으나 우선 부모의 유골을 깨끗이하여 좋은 묘지를 택해서 쓰게 되면 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아울러 돌아가신 분의 혜택으로 자손이 번창하리라는 풍수 사상(風水思想)에서 기인돼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는 가족 중에 임신부가 있거나 그 해 운수에 땅을 파서는 안된다는 경우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초분을 한 경우도 있고, 이장(移葬)할 묘 자리가 없을 때에도 가장(假葬) 형식의 초분이 행해졌다 한다.



### 3. 민간 신앙(民間 信仰)

#### 1) 巫俗(Shamanism)

사마니즘(Shamanism)은 우리 민족 신앙의 기반(基盤)과 핵심(核心)을 이루는 원시종교로서 지금까지 민간 신앙(民間 信仰)에 그대로 전승되어 있는 원시 고유 신앙(原始 固有 信仰)의 유물(遺物)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사만(Shaman)은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신안 지역을 위시한 중부 이남 지역에서는 점쟁이, 무당 대신 당굴 또는 단골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은 당굴이(Tengri)의 음역(音譯)으로서 그 뜻을 하늘 또는 제천자(祭天者)라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 정설이다.

이러한 제천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지방의 단골은 가계로 내려오는 세습 무(世襲巫)로서 신병을 앓고 무당이 되는 강신무(降神巫)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고, 굿도 반드시 여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단골이라는 말은 곧 무녀를 뜻하고 있으며, 남자는 고인(鼓人)으로 반주를 주로 맡는데 굿상을 장식할 지화(紙花)를 만들거나 전체적인 굿 진행을 돕는 것이 그들 임무의 전부이다.

본 도에는 한 단골리 일정 지역의 굿을 주관하는 주체자가 되는 단골 제도가 있다.

그래서 일정 지역을 맡은 단골은 그 마음의 여러 가지 통과 의례(通過 儀禮)나 생사 화복(生死 禍福)에 관한 의례, 건강에 대한 종교적 책임을 맡는 등 넓은 의미의 종교적 책임자가 된다.

특히 이 지방의 무속(巫俗)은 가족주의적인 색채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가무자(家巫者)가 여성이라는 점, 굿의 성소(聖所)가 거의 주택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 굿의 시기가 농경과 관계가 있다는 점, 굿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적으로 내적인 이익을 기원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단골은 강신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만(Shaman)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하는 무병도 앓지 않으며, 단골로 스스로가 신을 받아들이는 일도 없다.

그로 인해 강신무 굿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인 공수 즉 신이 제주자(祭主者)의



입을 빌어 말해 주는 행위도 없고 망자가 무녀의 입을 빌어 생전에 못 다한 한(恨)을 푸는 행위인 기밀도 볼 수 없다.

이것은 남도의 무속(巫俗)이 가무에 그치고 있으며, 단골의 역할은 신에게 호소하는 사제(司祭)의 기능만 할 뿐이지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통신사적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신안군 장산면의 사령(死靈) 굿인 셋김굿을 살펴본다.

사령 굿의 의도는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 주고 구천을 떠돌던 영혼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망자를 천도함으로써 후손이 부귀 복락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세적 개념에 있다고 하겠다.

장산면의 셋김굿 역시 같은 목적에서 시작한다고 보여진다.

굿은 대개 오후 늦게 시작하여 다음날 동이 뜨기 전에 모두 마치는 것이 보통이다.

굿당은 크게 안방과 마당으로 나뉘어지는 데 안방에는 성주 상과 조상 상이 차려지고 망자를 위한 상과 사자 상은 마당에 차려진다.

먼저 안방에서 모든 신을 청해 들이고 집안 식구들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굿을 행한 후 마당으로 나와 본격적인 망인 천도를 위한 의례가 행해진다.

셋김굿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열두 거리에서 열 일곱 거리로 구성이 돼 있다.

장산의 셋김굿은 열 다섯 거리로 돼 있는데 망자를 천도하는 의례가 세분화 돼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산에서는 부엌에서 하는 조왕반으로부터 굿이 시작된다.

첫째 거리인 조왕반과, 둘째 거리인 안당은 굿당의 부정을 가시고 모든 신과 망자의 넋을 청해 들이는 부분으로 잡신을 물리치고 액과 살을 막는 행위이다.

굿은 부엌에서 안방으로 옮겨지며, 집안 식들의 정성과 굿의 장소, 시간, 목적을 알리고 당산, 철음, 성주, 조상, 삼신의 강림을 축원하는 안당이 행해진다.

그리고 나면 가신(家神)을 모시는 거리인 성주 굿이 행해지는 세 번째 거리로 넘어 간다.

이 때는 간략하게 성주 고폘이가 놀아진다.

무녀는 3번 매듭이 진 한발 정도의 성주 고폘이를 성주 풀이를 부르며 자연스럽게 풀어 간다.

넷째, 다섯째 거리는 초가 망과 손 굿거리로 후손들이 어떤 목적 하에 굿을 하게 됐음을 조상신에게 인사하는 것이다.



초가 땅에서는 살풀이 장단에 맞춰 조상신을 맞아들이는 무가(巫歌)가 곁들여 진다.

손 곳 역시 조상 신을 모시는 거리로 무녀는 대나무와 지전으로 양손에 들고 손님 귀신과 조상, 선조들을 위해 굿을 한다.

여섯째 거리는 제석 굿이 행해지는데 여기서는 제석님네 만말 아기를 모셔들이 가족들의 안녕과 재수를 빌게 된다.

일곱째 거리인 고폘이는 망자의 맺힌 한(恨)을 상징적으로 풀어 주는 부분으로 쌀 주발을 묶은 무명 천에 일곱 개의 매듭을 만들어 무가를 부르며 하나씩 매듭을 풀어 간다.

그리고 나서 다음 거리인 녀풀이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8제왕을 불러들이 망자를 위로하게 된다.

아홉째인 오구 머리는 망자 천도 곳의 한 형태로 죽어 저승에 가는 망자를 바리데기 신에게 잘 거두어 주십사 기원을 하는 거리로 망자의 다음 생을 점치는 과정이 반드시 곁들어지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열 번째 거리인 씻김은 일명 영돈 말이라고도 하는데 망자가 저승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깨끗이 씻기는 의례이다.

마당에 조그만 상을 놓고 그 위에는 맑은 물과 쌀, 비누, 수건 등을 올려 놓고 옆에는 맑은 물을 담은 독을 놓고 솔뚜껑을 덮는다.

그런 후에 마당에 짚자리를 피고 그 위에 누룩을 놓고 상징적인 녀이 담긴 주발을 올린 후에 솔뚜껑을 덮는다.

그리고는 녀 주발을 덮은 솔뚜껑을 쭉뚫, 향물을 붓고 비누로 씻은 후 청수(淸水)로 헹구고는 빗자루로 깨끗이 씻어 내고 쌀을 뿌린 후 수건으로 솔뚜껑을 닦는다.

그리고 나서 콩을 뿌려 액을 막아낸다.

이렇게 씻김을 끝낸 녀는 저승으로 가는 강이 되는 독안의 물에 옮겨진다.

독안에 준비된 바가지는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배가 된다.

이 때쯤 되면 무녀는 “가자스라 가엸은 망재씨 오늘 이 씻김 받으시고 액사지옥 면하시고 왕생극락 하자스라”라고 사설을 늘어 놓는다.

이 씻김 거리는 곧바로 질 닦음 거리로 이어진다.

여기서는 망자가 저승으로 들어가는 길을 닦는 의미로 무명 천의 이승과 저승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망자가 편히 저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열 두 번째 거리인 망자 놀이는 그간의 맺힌 한도 풀리고 녀 씻김도 끝낸 망자



가 극락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망자에게 새 옷을 입혀 즐거이 놀게 하는 것으로 무녀는 망자의 옷을 들고 춤을 춘다.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오방굿, 사지굿, 해원굿(중천맥이)은 굿을 하는 동안 집안에 모여든 잡귀를 몰아내는 거리로 대문밖에 객귀와 사지를 위해 간략한 상을 차려 놓는다.

그리고 나서 망자의 옷과 냇을 모두 태워 버림으로써 열 다섯 거리나 되는 셋김굿은 끝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굿에서는 상징성과 사실이 주를 이루며, 신탁(神託)의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무녀 자신이 바로 신탁자(神託者)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가족이나 동네 사람 중에서 신탁(神託)의 대상을 삼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망자를 위해서 행해지는 사령제(死靈祭)가 여타 형태의 굿에 비해 자주 행해지는 형식이라 하지만 이것도 종교의 다양화와 무속을 타파시키는 경향 때문에 그 명맥 유지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네 잡재의식 속에는 샤머니즘(shamanism)적 종교관이 숨어 있음도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의 조상은 여러 신의 강림(降臨)과 영험(靈驗)을 체험적으로 느끼며,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도 막상 곤란에 처했을 때 기도의 대상은 한신(一神)이 된다.

때문에 신(神)에 대한 관념도 유일 신적(唯一 神的)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다신(多神)을 초월한 유일신(唯一神)이 아니라 다신(多神) 가운데 있는 일신(一神)이기를 원했다고 할 수 있다.

## 2) 部落祭 형식의 堂祭

본시 우리 나라의 민간 신앙은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유생관(有生觀·Animatism)에서 비롯 되었다.

산악, 하천, 수목, 암석 등의 자연물에 대한 외경(畏敬) 그대로의 신앙이 차츰 발달하여 모든 물체에는 정영(精靈)이 잔존한다는 유령관(有靈觀)이 된 것이다.

때문에 한국의 고유 신앙은 다원적(多元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종교적 특성은 마을마다 숭배의 대상을 설정하게 만들었고, 마을의 길흉 대소사(吉凶 大小事)에 대한 기도와 축원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 대상물은 암석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 오랜 된 고목이 선정된다.



마을에 따라 이것을 단산, 당나무, 성황당, 서낭당, 당집 등으로 불리며 이곳에 부락의 수호신을 모신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중심으로 부락민의 평은 무사를 비는 제의(祭儀) 형태가 생기게 됐다.

이것은 삼국 시대 이전 부족 국가 시대부터 전래되어 온 부락제(部落祭)로 부락민 서로의 협동심과 지연으로 얽혀진 일체감을 다짐하고 확인하는 단합 의식이라 할 수 있으며 부락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것으로 그 제의 성격이 민주성을 띠는 민중의 축제라고 할 수 있다.

당산(堂山)의 명칭은 동제당(洞祭堂), 산제당(山祭堂), 산신당(山神堂), 포제단(鋪祭壇) 등으로 지역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지만 그 근본은 모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신안에서는 신체가 깃드는 당(堂)의 형태를 암석으로 삼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는 했으나 대부분 오래된 고목(古木)이 당이자 곧 신체(神體)가 되었다.

당으로 선정된 고목은 신목(神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차츰 시대가 흘러 자연물로 존재하던 당이 건물 형태를 갖추게 되자 당집 안에 걸린 신도(神圖)나 방울, 목신상(木神像), 서낭대 등이 신목을 대신하여 신체(神體)의 구실을 하게 되었다.

지금도 신안군의 운영 부락에서는 당집이 있는 당만도 34개가 넘고, 군내에 남아 있는 당의 수도 100여 개가 넘어 전체 327개 부락의 34.8%나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신안의 토속 신앙인 당산의 구실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민간 신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당제(堂祭)의 제당(祭堂)은 산상 제단(山上祭壇), 임간 제당(林間祭堂), 동구 밖이나 들판에 있는 돌 제당, 바닷가에 있는 갯(독)제당 등 여러 유형이 있다.

이러한 제당 안에 거처하는 신들은 당 할머니, 당 할아버지, 미륵보살, 천신, 산신, 각시, 도령 또는 통쇠 등이 있으며, 하당(下堂)에서는 당 솔나무가 신목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도서적(島嶼的) 특성을 띠고 있어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상당, 하당으로 또는 갯(독)제로 제사가 이루어지는 이원적 구조를 보이는 것도 육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 하겠다.

이러한 이원적(二元的)인 당제를 집전하는 제관(祭官)도 당신(堂神)의 성별에 따라 그 성별을 달리한다.

여신(女神)을 모신 상당(上堂)의 경우에는 주로 남성 제관이 제의를 집전하고



남신(男神)이나 지신(地神), 용신(龍神)을 모시는 갯(獨)제와 거리제인 하당제에는 여성이 제주(祭主)가 되어 제의를 지낸다.

비록 상당과 하당에서 모시는 대상이 다르고 집전하는 제관이 성별 차이는 있으나 이 당제는 서로 연관된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여기서 제의(祭儀) 절차가 특이한 고란 마을의 당제(堂祭)를 살펴보기로 한다.

도초도(都草島) 지남리(指南里) 고란 마을에서는 정월 보름이나 그믐날에 마을의 풍년과 평안을 축원하는 부락제(部落祭)를 지낸다.

우선 제당(祭堂)이 세 곳에 정해지는데 제각(祭閣)이 있는 곳을 산당(山堂), 마을 내에 수 백년 묵은 주엄 나무가 서 있는 곳을 중당(中堂), 마을 입구의 한적한 곳을 하당(下堂)으로 정해 놓고 제의가 벌어지는 날에는 이 세 곳에서 각기 다른 의식(儀式)이 거행된다.

제관(祭官)은 그 해 운수에 맞는 세 사람이 선정되어 제의가 시작되기 3일 전에 제각(祭閣)으로 올라 간다.

제각에 올라간 세 사람의 제관은 이때부터 일체의 말을 삼가하고 손짓, 몸짓 등 행동으로 말을 대신하여 의사 소통을 하고 제각에 마련된 제기(祭器)를 이용하여 필요한 제물을 마련한다.

이들은 사흘간 간장과 깨소금 이외의 찬은 들지 않으며 목욕 재계하고 몸을 청결히 한다.

제사가 시작되는 저녁때가 되면 마을에서 등불로 신호를 하여 제의 시간을 제관들에게 알린다.

신호를 받은 제관들 역시 등불로 응답하고 나서 제복(祭服)을 갈아입고 제물을 갖춘다.

그리고 나서 산 위로 올라가 천신(天神)에게 자연의 재해 없이 한 해를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기원한다.

그 후 제관들은 마을로 내려와 중당에 제물을 차리고 지신(地神)에게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고 하당으로 가서 잡신(雜神)을 달래 보내는 의식을 베푼다.

상당(上堂), 중당(中堂), 하당(下堂) 세 곳에서 행해지는 이 제의는 새벽 첫 닭이 울기 전에 끝 마치게 된다.

우이도 부락제의 경우는 상당과 하당으로 당(堂)을 나누어 상당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하당에서는 제물을 만든다.

상당에서 제사를 마친 제관(祭官)들은 마을로 내려와 걸인제를 지내게 된다. 이 걸인제는 지남리의 하당 의식과 같은 의미로 잡귀를 쫓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서는 상징적 잡귀인 허수아비를 물에 띄워 보내는 특색 있는 의식이 행해지기도 한다.

또 우이도 진리(鎭里)에서는 당의 고목 나무 밑에 쥐당이라하여 쥐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을 마련해 놓은 재미있는 의식이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에 쥐가 많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생긴 의식이라 한다.

만일 이러한 부락제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동네에 초상이 나거나 해산하는 일이 생기면 부정이 났다고 간주하여 일정 기간을 연기하거나 그 해의 계획을 취소해 버리는 일까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그 해 운세가 맞는 제관(祭官)이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락제는 연기되거나 취소된다.

이것만으로도 제의(祭儀) 자체에 얼마나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곳 신안 지역의 당제는 도서민의 정신 속에 자리잡고 있던 육지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형태를 찾아볼 수 있지만 지금은 극히 일부 지역에서 그 명백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다.

### 3) 고서리 고막 마을의 龍祭

예로부터 흙은 만물의 기원이며, 생명의 터전으로 여겨져 왔다.

그만큼 농사짓는 일은 하늘 아래 돌도 없는 신성한 행위로 여겨졌다.

한 나라의 경제가 땅에 의해서 좌우되던 시기에는 나라 전체에 한발(旱魃)이 들면 군왕(君王)이 직접 제의(祭儀)에 참석해서 간절한 기원을 올렸다.

기우제(祈雨祭)를 지내고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군왕의 부덕을 탓하기도 했으니 기우제의 비중은 그만큼 크고 신성했다.

본 신안군 역시 한발(旱魃)의 재앙을 막고자 거행되는 기우제(祈雨祭)를 가장 중요한 공동 의례(共同 儀禮)로 취급했다.

이 공동 의례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직종에 따라 그 종류가 조금씩 틀려지지만 의도와 목적은 같고, 단지 절차상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기우제(祈雨祭)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용제(龍祭)라 불리는 의식으로 비금도의 고서리 고막 마을에서 행해지는 제의(祭儀)였다.

그 제의의 절차는 우선 마을 주민 중에서 나이는 40이 넘고 덕망과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 해 운수(運數)에 맞는 제관(祭官) 세 사람을 뽑는다.

이들은 제의(祭儀)를 주관할 사람들로 7일 동안 제당(祭堂)에 격리시키는데 이



제관들은 몸을 청결히 하고 간장과 깨소금으로 찬을 한다.

이것은 냄새나는 음식을 피함으로써 몸을 정갈히 하는데 정성을 다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용머리에 상당, 중당, 하당 각각 하나씩의 3개의 우물을 파 놓고 하당의 우물들 앞에 있는 제당(祭堂)에 제관(祭官)은 격리되어 이들은 이 우물물로 목욕 재계를 한다.

기우제(祈雨祭)가 시작되면 중당(中堂)에 파 놓은 우물가에서 제물로 바칠 송아지를 잡는다.

마을 면민의 정성으로 모아진 비용으로 마련된 송아지는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일곱 개의 주머니에 밥을 넣은 후 그것을 송아지 뱃속에 넣어 꿰맨 후 용머리 적벽 아래 바다로 던진다.

그리고 나서 상당(上堂)의 우물물을 정성스럽게 떠 놓고 비를 소원하는 엄숙하고도 경건한 기도를 천신(天神)께 올린다.

이 의례(儀禮)가 벌어지는 동안에는 마을 전체가 의례의 효험을 빌어야 하기 때문에 제의(祭儀)의 신성함을 해치는 일은 일체 금지된다.

이 기우제(祈雨祭) 역시 동네에 초상이 나거나 해산(解産)하는 일이 생기면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된다.

지금도 가뭄이 심할 때는 이 풍습이 전래되어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

#### 4. 놀이의 形態와 民謠

##### 1) 農樂 놀이

농악 놀이는 흙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우리 민족과는 그 연관성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

농악(農樂)이라는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이 놀이는 흙에서 살던 농자(農者)들의 노동에서 출발했다.

농악이 다른 놀이에 비해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놀이의 시작이 노동이라는 점 때문이다.

노동이 없다면 놀이의 존재도 진정한 가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농악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오락 형태로 놀이와 음악이 매치를 이룬 생활 속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놀이는 특별한 훈련이나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단지 김매고, 모심고, 쟁기질하는 고된 일을 하면서 그 피로를 잊기 위해 흥얼거린 콧노래와 그에 어울려진 춤사위가 발전하여 하나의 놀이 형태로 자리를 굳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악의 독창성은 여타 음악의 세련미를 능가하는 탁월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이처럼 농악은 노동과 협동심에서 시작된 놀이인 동시에 농자(農者)들의 간절한 풍년, 풍어의 소망을 비는 신앙이기도 했다.

그것은 신안 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악 놀이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남자들이 주축이 되어 농악대를 조직한다.

이렇게 조직된 농악대는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명나게 농악 놀이를 시작한다.

어떤 놀이든 놀이꾼이 있으면 구경꾼이 있게 마련이다.

이들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나뉘어지며, 놀이꾼은 놀이가 끝날 때까지 연희자(演戲者)로, 구경꾼은 끝내 관객으로 그 맡은 역할을 마치고 만다.

그러나 농악놀이는 놀이꾼이나 구경꾼이나 모두 놀이의 주체가 되어 함께 놀이를 만들어 나간다.

관악기 보다는 장단을 두드리는 타악기가 주류를 이루는 농악은 팽과리, 징, 북, 소구, 장구 등의 타악기를 마을이 떠나갈 듯 두드리며, 한해의 농사를 시작하게 됐음을 지신(地神)에게 알리기라도 하듯 강한 울림으로 장단을 메긴다.

이들은 맨 먼저 마을의 당산(堂山)으로 가서 부락의 평안을 빌며, 아울러 풍년을 기원하는 당산 굿을 한다.

이 굿이 끝나면 식수원(食水源)이 되는 공동 샘으로 가서 샘굿을 한다.

이렇게 먼저 마을의 수호신이 당산과 샘각시에게 놀이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나면 본격적인 놀이인 마당 밟기가 시작된다.

이 마당 밟기는 농악대가 마을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재앙을 막고 복을 빌어주는 행위로 대문 앞에서 하는 문 굿을 시작으로 집의 구석구석을 돌며 온갖 가택신(家宅神)에게 그 집의 부귀, 안녕을 기원한다.

방문을 열어 놓고 마당에서 성주 굿을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는 조왕 굿을 한다.

장독대에서는 천룡 굿을, 곳간에서는 곳간 굿을, 측간에서는 측간 굿을 하고 나면 이들 신에게 놀다 간다고 알리는 판 굿이 행해진다.



판 굿이 진행되는 동안 집주인은 액을 막아 주고 복을 빌어 준 농악대에게 감사의 표시로 음식을 장만해 온다.

판 굿을 끝낸 농악대가 음식을 먹는 동안 놀이의 주관은 잡색군들에게로 넘어간다.

이들은 「탈군 놀음」이라는 탈놀이를 펼치며 해학과 풍자로 구경꾼들이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므로서 더 한층 흥을 돋구게 된다.

**“민요 속에 나타난 민중의 표현은 비관적이 보다는 해학과 풍자로 슬픔과 고통, 외로움과 고난도 극복하려 했다.”**

매구, 풍물, 걸궁, 걸립, 두레 등으로 불리는 농악은 온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놀이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밑바닥에는 안락과 풍년을 비는 간절한 민중의 신앙심이 깃들여 있다.

또한 마을 공동 축제로서 부락의 결속을 다지고 고된 노동의 능률과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을 갖고 있어서 장제나, 풍어제, 기우제 등 마을에 제사가 있으며 동원되어 흥을 돋구거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일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민족의 놀이인 농악이 현대화에 밀려 그 순수한 목적을 상실한 채 단순한 놀이의 성격만 띠고 있어 아쉬움만 더해 주고 있다.

## 2) 民 謠

민요는 민중에 의해 공동 창작되어 불리던 구비 전승(口碑 傳承)의 노래 형식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감정보다는 민족적 보편성에 입각한 정서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공동체적 삶의 체험에서 느끼는 생활 감정을 익숙한 생활 리듬, 노동 리듬에 기반을 두고 불리지던 민요는 민중에 의해 공유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시대상,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민요가 역사성이나 사회성을 지니는 것은 민요의 내용인 공동체적 생활에서 느끼는 정서가 구체적인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유행가와와는 본질적으로



로 다른 것이 민요라고 하겠다.

민중은 그들의 정서를 표현할 때 비판적이기 보다는 해학과 풍자로서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집살이의 어려움과 서러움을 노래할 때도 해학과 풍자로 그 슬픔을 차단시키고 노래의 주제에 비판적인 깊이를 지니게 한다.

이러한 해학과 풍자는 자기 긍정적이고 현실 극복의 공동체적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다.

또 그 때 가창자(歌唱者)의 심리 변화에 따라 가사 내용의 변화를 보이는 것도 민요의 특징이라 하겠다.

이처럼 민중의 생활을 파고든 민요는 소박한가 하면 외설적(猥褻的)이고 담백한 맛이 있는가 하면 생활의 깊은 맛을 읽어 낼 수 있다.

하의면 노동요의 소절을 보면 생활의 솔직함과 짓궂음이 어울어져 빚어내는 외설스러움은 차라리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방님 오신 다기에 옷 벗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설사병이 났네

동생과 언니의 문답형인 노랫말로 시작되는 안좌면의 뱃놀이 타령 역시 수줍은 듯한 외설 스로움이 스며 든다.

언니는 좋컨네 언니는 좋컨네  
즈그 형부 코가 큰개 언니는 좋컨네  
아우야 동생아 그말을 말어라  
느그 형부 코만 좃키 별 것은 아니란다.

이에 반해 흑산면의 보리 타작 노래는 생활의 힘겨움과 삶의 한탄을 욕설 비슷하게 늘어 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불러 재킴으로서 생활의 고달픔을 질게 만들고 있다.

~쥐길연아 살릴연아 대동강변에 목빌연아  
병든 가장 뉘어 놓고 어린자식 잠재워 놓고  
밤중 밤중 야밤중에 어델가면 잘 될소냐 엔아~



밤을 틈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인네와 그런 상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남정네의 비하면 그나마 자신의 처지는 살만 하지 않겠느냐는 역설적 가능과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인간의 도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도의적인 측면이 숨어 있는 듯도 보인다.

도초면의 사랑가에는 능청스러운 유머가 숨어 있다.

~우리 집 서방님은 명태 잡이를 갔는데

바람아 불어라 설달 열흘만 불어라~

~종로 네거리 솔 때우는 영감님 정 떨어진 데는 무엇으로 때우나요

~정 떨어진 데는 돈으로 때우고 솔 떨어진 데는 낱으로 때운 대요

그런가 하면 암태면의 어머니 죽음 같은 노래에는 불가능한 사실을 강하게 궁정 함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민요는 생활과 노동의 현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피와 눈물, 한숨과 웃음이 숨어 있다.”**

특히 흑산면(黑山面) 심리(深里) 마을의 등당기 타령은 일종의 잡귀를 물리치는 의식의 한 방편으로 귀신이 싫어하는 활방구와 물방구의 장단을 맞춰 노래를 부르며, 무병함과 풍년을 기원하는 민요로 상원, 유두, 백중, 추석 등의 명절날 밤이나, 작업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불려졌다.

이 등당기 타령은 부녀자들의 노래로 뒤웅박의 경쾌한 리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유연하고 섬세한 원무를 추었던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민요의 주종을 이루는 노동요는 생산 현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노동하는 이들의 호흡과 맥박의 움직임에 자연적으로 순응하며 동시에 몸을 움직임에 있어서 힘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출발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처럼 민요는 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의 피와 눈물, 한숨과 웃음이 배어 있다.

그런 노래가 지금은 단순한 유행 음악에 밀려 겨우 명맥 유지만 하고 있다.

민중 문화에 기반을 둔 전통 민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책임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



이제는 민요도 탈춤과 마찬가지로 복구와 창작이 행해져야 하리라고 본다.

#### 4.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新安(新安)은 도서 지방(島嶼 地方)이라는 폐쇄성 때문에 전통 문화의 보존 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문화 영역에 대한 애착은 물론 육지로부터의 문화 유입에 배타적인 면을 보여 도서 문화(島嶼 文化)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생활 문화의 형성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이들은 모든 삶의 기반을 신력(神力)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소박한 마음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 흡수하며 살았다.

하늘은 물론 땅과 바다, 집안 구석구석을 관할하는 모든 신에게 안정된 삶과 풍요를 기원하였다.

때문에 그들의 생활에는 정성이 담겨 있고 겸허함이 숨어 있다.

그러나 시대는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고 낡고 오래된 것보다는 새롭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서구 문물과 상업주의가 유입되고 그로 인해 퇴폐적이고 향락적인 단세포적 문화 형태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대화는 우리에게 외부적인 윤택함을 치장하는데 도움이 됐을 지는 모르지만 정신적 황폐를 초래한 것도 부언할 수 없는 일이다.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롭고 신선한 것에 우리의 생활을 길들이려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의 미풍양속을 계승, 보전함과 더 나아가서는 현실에 맞는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전통 문화는 바로 우리의 문화이며, 아울러 우리의 정신적 지주라고 생각되는 때문이다.